110 학년도 1 학기 유라시아재단 국제강좌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 문학의 구축과 변용」시리즈(12)

강제: 역사, 기억 그리고 일본 언론: NHK 아침드라마 분석

제 12 주차 유라시아재단 국제강좌에서는 본교 일본어문학과 황신이(黃馨儀) 부교수를 초청하여 「역사, 기억과 일본 언론: NHK 아침 드라마의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다. 황 교수는 우선 자신의 전공 분야를 어떻게 바꾸게 되었고 연구를 시작하게 된 해외 유학 경험을 우선 학생들에게 공유했다. 언론과 사회의 관점에서 NHK 아침 드라마 연구를 하게 된 동기, 시기별 변화와 특색, 나아가 아침드라마에서 그려낸 전쟁의 역사적 기억을 다루고 있다.

우선 황 교수는 일본어과에서 방송학과로 전공 분야를 바꾼 자신의 학문적 경험을 언급하며 대학 재학 중 대학생들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연구에 대한 토대를 키웠고, 자신의 일본·미국 유학 경험을 공유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유학 경험을 권하였다. 일본에서 아침드라마가 시작된 지는 이미 60 년이 되었고 텔레비전 '연속 TV 소설(아사도라)'의 명칭은 신문 '연재소설'의 형태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매일 아침 15 분씩 방영되는 독특한 형태로 일본에만 있는 특유한 드라마 형태이다.

황 교수의 연구에서는 아침 드라마 아사도라를 다섯 가지 시기로 나누었다. 제 1 기(1961~1974)는 초창기 문학 작품이 많았으나, 1966 년 '오하나항(おはなはん, 花小姐)'이 방영된 후 아침 드라마의 '여성 일대기' 장르와 가족극과 함께 양대 장르로 꼽히게 된다. 제 2 기(1975~1988) 평균 시청률 40%를 기록했고, 메이지·다이쇼·쇼와를 배경으로 여주인공이 전쟁을 겪은 이야기가 많았다. 제 3 기(1989-2000)와 제 4 기(2001~2010)는 시대적 맥락에 맞춰 현대 여성의 꿈과 연애를 쫓아가고, 지역 진흥에 발맞춘 주제가 주축을 이루었다. 제5기(2011-)는 가장 인기 많은 여성 일대기에 대한 주제로 돌아온다. 아침드라마의 중요성은 '일본 공통의 문화를 잉태한다'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황 교수는 현존하는 영상과 TV 주간지의 텍스트

를 분석한 결과, 이 시리즈에서 전쟁을 다룬 작품의 비율이 42%, 84%, 28%, 14%, 63%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디어학 기법으로 드라마 연구를 진행할 때 장면(텍스트) 분석, 기록화면 이동기법 등 실증적인 방법으로 영상 텍스트를 재현할 수 있다.

강의 중 황교수는 ①60~2000 년대 아침 드라마, ②2011 년 이후 아침드라마, ③2011 년 이후 종전 드라마로 세 부분으로 아침 드라마에서 전쟁과 여성을 보여준다. 황 교수는 일부 작품에서 대동아 전쟁 종결 의조서(옥음방송,玉音放送) 등의 영상을 보여주며 아침 드라마에 나타난 전쟁의 실상을 학생들에게 공유했다.

① 1960~2000 년대 아침드라마 속의 여성들의 전쟁 체험은 아주 유사하다. 남성들의 참전·공습·피난·전사 통지서 등을 여성들은 함께 겪게 되고 여성은 후방에서 가정을 지키게 된다(후방 방어,銃後の守り). 여주인공의 전쟁에 대한 태도는 연도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전쟁을 반대하고, 70~80 년대 여주인공들이 특히 강한 반전(反戰) 입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② 2011 년 이후 아침드라마에서는 2011 년도 방영된 '해님,오히사마'(요코)에서는 기존의 반전(反戰) 입장과는 달리 전쟁을 찬성하는 형제와 학생이 전쟁에 참전하는 모습이 나온다. 황 교수는 2011 년 이후 작품으로는 도쿄방송국(AK)과 오사카방송국(BK)의 두 방송사의 제작에 초점을 맞춰 소개했다. 2015 년 이전 BK 는 반전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2016 년 이후에는 반전 메시지가 희석되고 개인의 행복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하였다.

③ 2011 년 이후에는 종전 드라마가 주로 나타나며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종전 드라마는 반전(反戰) 메시지를 많이 내포하고 있고 전쟁 체험 위주로 방영된다. 아침드라마와 전쟁드라마가 보여주는 전쟁의 특징을 정리해 본다면 아래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 여성들은 후방에서 가정을 지킨다.
2. 실제 전쟁이 이루어지는 전선의 모습을 거의 묘사하지 않고 평민의 고난을 위주로 묘사하다.

3. 남성의 부재로 여성은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대신 진다.

4. 여성=반전(反戰)

일본의 아침드라마를 통해 미디어와 사회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이번 강의에서 전쟁이라는 역사적 기억을 초점으로 분석할 때 시대별 전쟁 묘사는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쟁이라는 역사적 기억이 TV 매체에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풍화(風化)되어야 할 전쟁의 기억은 끊임없이 재구성되어 일본 국민의 공통된 기억으로 남아 있고, 전후 70 여년이 지난 지금도 아침 드라마에서 전쟁의 실상을 볼 수 있고, 시대별로 전쟁 표현의 처리와 변화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메시지로 여겨진다.

학생들은 질의 응답 시간에 적극적으로 많은 질문을 하였다. 아침드라마의 전쟁과 반전의 메시지가 일본 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장르가 일본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있는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는 일본의 여성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일본 문화의 심도 있는 해석을 묻는 의제를 담으며 열띤 토론으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웹사이트 : https://eurasia.pccu.edu.tw/index.php)

(원고 : 黃馨儀 일본어과 • 副教授)

번역: 장민자(張珉慈) 한국어문학과 석사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교수